

## 대담

---

### 서울, 희망의 도시를 향하여 박원순 서울시장과 데이비드 하비 교수의 대담

편집자 주: 박원순 서울시장과 데이비드 하비 교수 간에 이루어진 이 대담에서, 두 분에게 한번 발언의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대담하도록 요청했으며, 또한 진행자가 두 분의 대담에 가능한 개입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두 분의 발언이 다소 길게 전개되었고, 전체적으로 발언의 횟수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두 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을 뿐만 아니라 상호교감을 통해 진지한 대담을 나눈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글은 대담 과정을 녹취한 후 가능한 원문을 살리면서 어색한 구어체 문장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적절하게 문단을 나눈 것이다. 하비교수의 발언은 원문과 번역문을 동시에 게재했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 ] 속에 서술했다.

일시: 2016년 6월 24일 오후 1시~2시 30분

장소: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진행: 최병두(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최병두 며칠 전 출판사 창비에서 개최했던 여러 행사들을 통해 하비 교수님에 대해 소개가 있었고, 또 이곳에 모이신 청중들께서는 두 분에 대해 이미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의 직접적인 인사 말씀이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이 대담이 가지는 취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컨퍼런스는

저희들이 한국공간환경학회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던 책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제는 ‘위기의 도시에서 희망의 도시로’의 전환이며,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논문들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비 교수님이 마침 창비의 50주년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비 교수님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고, 또한 한국의 도시 공간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비 교수님은 물론 세계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이론가이지만 또한 실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 즉 실천적 정책에 나름대로의 이론적 개입이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이 점은 한국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고, 실천적 정책의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자신의 이론이나 개념들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진보적이고 시민단체의 조직을 담당하셨던 활동가 출신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쌓아온 자신의 사회적 조직 활동의 경험을 현재 서울시장으로서 시정에 원용하시고자 하는 실천적 행정가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의 실천적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어디에 위치 지워질 수 있는가? 또 다른 한편으로 실천적 활동가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정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 이런 의문들에 대해 자기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좀 더 이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하비 교수님은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 박원순 시장님도 작년에 영국의 가디언지(Guardian)에서 세계 5대 거대도시의 주도적인 시장님들 중에 한 분으로 꼽힐 정도로 이제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전 세계적인 이

론가 데이비드 하비 교수님과 또 다른 한편으로 세계적 인물로 부상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 시장님과과의 대담은 사실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의를 가지는 대담을 통해, 두 분께서는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의 대담에서 이론과 실천을 매개할 수 있는 고리는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하비 교수는 『희망의 공간』이라는 책을 쓰셔서, 저희들에게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인 희망의 도시에 관한 중요한 지침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다 아시겠지만, 희망제작소를 만드셔서 우리 사회, 우리 도시의 희망을 위한 실천을 직접 제안하고 수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담에서 ‘이론과 실천을 매개하는 고리가 희망이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두 분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무쪼록 우리의 희망, 도시의 희망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선 서울연구원의 조권중 박사님의 서울 시정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두 분의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5분 정도 이에 관한 발표가 있었음).

최병두 예, 조박사님 서울 시정에 관한 압축적 발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발표를 급하게 끝내도록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어떤 특정 정책들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의 그동안 서울 시정을 위한 정책들은 사실 한,두가지 단어, 예로 ‘포용도시’라든지 ‘공유도시’라든지 어떤 압축적 용어로 표현하거나 개념화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개별 정책들이 가지는 의미를 몇 가지 구체적 사례로 발표하고 그 의미를 논의하는 것도 의미 있는 브리핑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박 시장의 정책들은 대부분 과거 어떤 시장들의 정책들보



출처: 서울시 제공

다도, 훨씬 더 진보적이었고, 적극적이었고, 희망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조직 활동을 통해서 경험한 바를 현실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고, 또한 앞으로 희망의 도시를 향해 나아가려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발표한 그런 정책들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대담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사실 두 분과 함께 오늘 컨퍼런스의 발표자들이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나눈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주제들도 오늘 대담의 주요 주제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서울, 희망의 도시를 향하여’ 나아갈 방향과 실천 과제들에 관하여, 두 분께서 직접 동시통역을 통해서 대담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제가 두 분에 대한 소개는 더 이상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우선 어느 분부터 먼저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그러면 박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부터 하시겠습니까?

박원순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청중이 가득 찬 회의는 제가 근래 보기 참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주제에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뒷줄에 가득 앉아서 계시고, 이렇게 앞에도 앉아계신 청중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서울시의 수준, 서울시민의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데이비드 하비 교수님하고 제가 대담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책을 이렇게 많이 사다줬는데요. 보니까 이게 전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있더라고요. 교수님, 돈 좀 버셨나요? 저도 책을 한 40권정도 썼는데요, 저는 늘 초판 클럽 멤버라서, 저의 책은 초판밖에 안 팔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청중이 많은 것을 보면, 아마도 교수님 책을 읽은 독자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하비 교수님 이렇게 서울을 방문해주시고 오늘 이런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흔히 ‘도시의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인류의 약 50% 정도가 이미 도시에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경우는 날 새고 나면, 도시가 하나 생길 정도로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화의 속도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정도로 빠르다고 하겠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2030년이 되면 아마 60% 정도의 인구가 도시에 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하겠지요.

제가 지난 번 과리에 신기후체제 협상에 참여했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도시의 시장들은 아무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 했죠. 그런데 지난 번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Compact of Mayors’라고 하는 ‘시장 협약’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 회의에 UN 사무총장,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까지 참석하였고, 그래서 실제 정부가, 중앙정부가 큰 틀에 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건, 중앙정부의 ‘implementation’은 역시 도시다”라는 점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비 교수님도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화의 시대, 도시의 어떤 중요성, 도시의 역할, 또 시장의 역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비드 하비 Surely, it's a great privilege for me to be here an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talk with you, but also to be in a conversation with somebody who has the kind of political power that I have never, ever had. Of course, never having the political power I've always wanted to fantasize about all sorts of things, which are clearly impossible. And I've enjoyed that privilege a lot.

저가 여기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과 말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 제가 평생 가지지 못했고 앞으로도 가지지 못할 그런 정치적 권력을 가진 누군가와 대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제게 대단한 특권입니다. 물론, 이런 정치적 권력을 한 번도 가지지 못한 저는 모든 종류의 것들에 대해서 공상에 잠기기를 언제나 원했는데, 사실 모두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오늘 그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But, in my own thinking, I tend to simplify these questions into saying there are two logics of power in society. One is the logic of power which is based in territory. The state, and municipal governments, and even smaller entities like gated communities exercise the kind of territorial logic of power. There's another logic of power which I essentially attribute to capital, which is a movement of money and commodities, perpetually seeking more money through the production of more commodities. Now these two logics intersect and I always go back to Adam Smith's formulation of the *Wealth of Nations* when he pointed out that the statesmen who were concerned of the territorial logic of power, now the best way that you could get your state to become rich was to liberate economic activity and the capitalist logic of power within the borders. And that way the state

would become, very wealthy. Adam Smith did go on to say, which most conservatives forget, that the states would then be in a position to use that wealth and power whatever way they wanted including the necessary redistribution of that wealth to significant sectors in the population, and the pursuit of public works, and the public good, or of course the statesmen could use it to go to war and do other completely stupid things.

그러나 저 자신의 생각으로, 저는 이 질문들을 ‘사회 권력에는 두 가지 논리가 있다’라는 말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영토에 기초하고 있는 권력의 논리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심지어 ‘폐쇄적 지역사회들’과 같은 더욱 작은 실체들이 이러한 영토적 논리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또 다른 권력의 논리는 제가 근본적으로 자본에 부여하는 것인데, 이것은 화폐와 상품들의 움직임이며, 더 많은 상품들을 생산함으로써 더 많은 화폐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이러한 두 논리들은 교차하는데, 여기서 저는 언제나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의 다음과 같은 정식화로 되돌아갑니다. 통치자는 늘 영토의 권력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를 더욱 부자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경 내에서 경제활동과 자본주의적 권력 논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또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 보수주의자들이 많이들 잊어버리는 말이지만 — 다음과 같은 말도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부와 권력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거기에는 사회의 주요 분야에 부를 재분배하거나, 공공재 등 공공성을 추구하는 일도 있겠지만, 또 전쟁을 일으키거나 하는 다른 명칭한 일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So, the two logics of power are dependent upon each other, and I think we see this very clearly at the municipal level that in order to have the kind of wealth and power to be able to do things like, you know, create spaces for cultural events, invest in public spaces, bring benefits to the citizenry, and the like, you have to negotiate with the capitalist logic of

power. Now the capitalist logic of power requires that states be, let's say, compliant to some degree with their needs and their requirements. So, every mayor I've ever met said, "Well, I can see something to capital in order to get the revenues to do something good for people." They always say that, they don't always do that because sometimes the capitalists demand even more help, even more subsidies, even more, so that, the ability to utilize the surpluses that are produced through this process in the public benefit gets delayed well and well into the future.

권력의 이러한 두 논리는 상호의존적이며, 저는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행사를 위한 공간을 만들거나, 공공 공간에 투자를 하거나, 시민들에게 이로움을 가져다주는 등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종류의 부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당신은 자본주의적 권력의 논리와 협상을 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적 권력의 논리는 국가로 하여금, 말하자면 일정 수준 자본주의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도록 요구합니다. 제가 지금껏 만나본 모든 시장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람들에게 무언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자본에게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그런 식의 말을 하지만, 그들은 항상 그렇게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은 때로 더 많은 도움, 더 많은 재정 지원, 심지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생산된 잉여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능력은 점점 더 먼 미래로 계속 지연되는 것입니다.

Now I'm not saying this is the case in Seoul, but it seems to me that any mayor of any city is in this delicate kind of position, or me being a Marxist though I'd say, you sit at the center of a contradiction. And that contradiction is, you can't abolish it. You therefore have to figure out a way to manage that contradiction such that you do enough on one side to be able to create well-being on the other side. And I see from the kinds



of things that you've just heard about the city of Seoul that there are genuine efforts being made to redistribute wealth and power either in kind, through public investments, or directly to populations in terms of assistance and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the like.

지금 저는 이것이 서울의 사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어떤 도시의 그 어떤 시장이든 이러한 민감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당신은 ‘모순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모순은, 당신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한 측면에서 이 모순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참살이(well-being)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서울시에 대하여 들은 것들로 보건데, 서울시에서는 부와 권력을 재분배하려는 진정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투자를 통해서나, 또는 보조금과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재분배하려는 그런 노력 말입니다.

Now I'm not in a position of course to say very much about exactly what has happened here in Seoul, but I do have some very general observations of it I'd want to make(→ mention?). One observation I would make about the presentation we just had was that, capital was never mentioned. I find this very interesting because that's the center of the power, and in some ways, the center of power which currently is experiencing a lot of difficulties and a lot of problems.

제가 여기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이 말을 할 입장은 물론 아니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하는 다소 일반적인 몇 가지 관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있었던 발표에서 자본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본이 바로 권력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현재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있는 그러한 권력의 중심에

자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And the problem to me is that the circulation of capital has a great deal of difficulty in defining adequate investment opportunities to try to create new profits. And there are two aspects to this that I think are very significant. Marx pointed out very early on in *Capital* that if you have a commodity that is produced but nobody wants, needs, nor desires it, then it is not worth anything. Therefore, the fact is that the cultivation of wants, needs, and desires is very much what capital is about. And the history of capital has been about that, and this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connotations. New wants, needs, and desires are created which in some respect [is] complimentary to human, the advancements of human capacities and powers.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자본의 순환이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적절한 투자 기회를 규정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는 유의미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의 상당히 앞부분부터 이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생산된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이것을 원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고, 욕망하지 않는다면, 이 상품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 됩니다. 사실 자본이라는 건 욕구, 필요, 욕망을 배양하는 것에 엄청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의 역사는 항상 이에 대한 것이었고, 긍정적 함의와 부정적 함의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욕구, 필요, 욕망은 어찌면 인간에게 축복, 즉 인간의 역량과 권력의 향상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We can for example invest and create wants, need, and desire for better education, for culture, for appreciation of nature, and the like. And again, I see some initiatives of that sort going on in this city. But the cultivation of wants, needs, and desires can also lead to kind of, the absorption of capital, to what I would call the insane aspects of contemporary urbanization.

And these insane aspects of contemporary urbanization include the pursuit of mega projects of all kinds, the pursuit of certain kinds of events which are about instantaneous consumption, that is, the pursuit of spectacle. So you know World Cups, Olympic Games, Biennales, you name it, everything that is kind of turning very fast.

우리는 예를 들어 더 좋은 교육, 문화, 자연의 존중 등을 위한 욕구, 필요, 욕망에 투자하고 이들을 창출할 수 있겠지요. 역시, 이러한 노력이 서울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욕구, 필요, 욕망의 배양은 또한 자본의 흡수와 같은 것을 유도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현대 도시화의 무분별한 측면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현대 도시화의 이러한 무분별한 측면들에는 모든 종류의 메가 프로젝트들의 추구, 즉각적인 소비에 대한 특정 종류의 이벤트들의 추구, 그리고 스펙터클에 대한 추구 등이 포함되겠지요. 예를 들면 월드컵, 올림픽, 비엔날레, 이런 것들이죠. 재빠르게 순환하는 모든 것들을 열거할 수 있을 겁니다.

And at the same time the structuring of urban life in such a way that wants, needs, and desire become necessities, that you have, in order to live, you need an automobile. How can you live without an automobile? Now I don't believe that humanity since, you know, its presence on this Earth has had a secret desire for an automobile. I don't believe it had a secret desire for a suburban house. I don't believe it had a secret desire for many of those things which we have to have in order to live contemporary urban life.

그리고 동시에 도시적 삶의 구조화는 욕구, 필요, 욕망이 필수적인 것들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살기 위해서 당신이 자동차가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동차 없이 산다는 말입니까? 자,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인류가 지구 위에 나타난 이래로 자동차에 대한 비밀스러운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

습니다. 인류가 교외 주택에 대한 비밀스러운 욕망을 가졌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현대의 도시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류가 다수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밀스러운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Now there's an interesting phrase which we discussed yesterday at one of the meetings I had, which is what E. P. Thompson talked about in *The Cultivation of Desire*. And it seems to me that right now there is a lot of discontent with the qualities of urban life. There's a great deal of distress, not at the quantity, but at the qualities of urban life. And that therefore we need to pay much more attention to this issue. And the same is true of jobs. Even when the jobs are available, none of the jobs are meaningless, or seem to be meaningless to the people holding them. So if you wish to have a meaningful life, then it seems to me that both the nature of the jobs, and the quality of the jobs, and the quality of daily life becomes a central issue in terms of the cultivation of desire, in such a way as to make for, beneficial for urbanization. And I sometimes fear that the sort of technocratic approach to these questions of sustainability and inclusion and so on tends to dominate what seems to me to be an alternative world of thinking about what it is that we really want, from our urban experience.

어제 제가 참석했던 한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흥미로운 말이 있는데, 톰슨이 『욕망의 배양』에서 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보기에는 도시적 삶의 질에 대한 불만이 현재 팽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도시적 삶의 양이 아니라 질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훨씬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일자리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자리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일자리의 속성이나 질이나,

일상적인 삶의 질은 욕망의 배양 측면에서 핵심적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화에 이로운 방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속가능성, 포용, 기타 등등의 이런 문제들에 대한 기술 관료적 접근이 우리의 도시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안적인 세계처럼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음을 걱정합니다.

The second thing I would point out is this. That, in many ways the disruptions which are occurring to urban life, do not really represent any drive to meet wants, needs, and desires in what I would call a meaningful way. It really represents the wants, needs, and desires of that factional society that we call capital. Capital needs to expand. It needs to grow. The growth imperative is absolutely central for a very simple reason. The capitalists seek profit. If all of them make profit it means there is more at the end of the day than they did at the beginning of the day, and that more has to be absorbed. And increasingly we are seeing this compound growth of capital, running into barriers that it cannot circumvent. And one of the ways in which capital actually utilizes its surplus is through radical transformation of urban life. I'd like to point out that, in many ways, what is happening around the world, and I see it everywhere to some degree, is that we're building cities for capital to invest in, not cities for people to live in. And that, it seems to me, to again affect how populations structure their wants, needs, and desires.

제가 지적하고 싶은 두 번째 측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시 생활에 게 여러 방법으로 일어나는 많은 불화는 사실 욕구, 필요, 욕망을 저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반영하려는 충동을 실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는 거짓 사회의 욕구, 필요, 욕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확장해야 합니다. 자본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에 대한 당위성은 정말 단순한 이유에서 중심적입

니다. 자본가들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익을 낸다면 하루 시작에 비해 하루 끝에서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게 되고, 더 많이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우리는 자본의 이러한 복률적 성장이 회피할 수가 없는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이 스스로의 잉여를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도시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저가 어디서든 상당 정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본을 위해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한 도시가 아니라, 자본을 투자하기 위한 도시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금, 인구가 어떻게 욕구, 필요, 욕망을 형성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In other words, in order to hand on something to the future, we need a secure form of investment. The stock market is not doing good anymore. What kinds of other things are available? One thing people begin to believe is that having property is actually one of the best ways in which you can preserve wealth and hand it on to the next generation. In other words, social security is no longer guaranteed by governments because we see that it's consistently under threat. It's more and more guaranteed by individual action in which property ownership becomes a means of saving, and a means of transfers of wealth. It is also incidentally becoming a means of laundering money and gaining advantages in all sorts of illicit ways.

다시 말해, 미래에 무언가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안정된 투자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주식시장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다른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것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부를 유지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보장은 더 이상 정부에 의해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그것은 시종 일관 위협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은 점점 더 개인행동에 의해

서 보장되는데, 부동산 소유가 저축의 수단이 되고, 그리고 부 이전의 수단이 됩니다. 이것은 또한 부수적으로 돈을 세탁하거나 온갖 불법적 방법들로 이점을 획득하는 수단들이 되고 있습니다.

With that, what we see is a flow of investment, pouring into urbanization in such a way as to absorb what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alls the Surplus of Liquidity that exists around the world. The surpluses of capital don't know where to go. Well, maybe what we should do is engage in crazy mega projects. Maybe what we should do is to try to push very hard for the construction of new housing, apartment blocks, and the like. Now we have the really phenomenal situation. The crisis of affordable housing almost everywhere I go in the world, but the same time there are building booms, what might be called upper income style housing, and this contrast, is something which in New York City would feel very strongly. There's these huge buildings. A lot of the buildings are not lived in. They're just invested in. Invested in by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looking for a secure place to park their money. So you have all these empty buildings amidst of a crisis of affordable housing for the mass of the population. This is what I call insane urbanization.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투자의 흐름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소위 말해 IMF가 '유동성의 잉여'라고 부르는 것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도시화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의 잉여는 어디로 가야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아마도 광적인 메가 프로젝트들에 종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새로운 주택,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유사한 것들의 건설을 매우 열심히 밀어붙이도록 시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정말로 경이적 상황에 처했습니다.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의 위기는 제가 세계 어디를 가든 거의 모든 곳에서 존재하는데, 동시에 고소득 스타일의 주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축

호황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대비는 뉴욕 시에서 매우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이와 같은 거대한 건물들이 있고, 그 건물들의 다수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있다. 그것들은 단순히 투자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돈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고 있는 세계 곳곳으로부터의 사람들에 의해서 투자된 것이지요. 대중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위기의 와중에 이런 모든 빈 건물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무분별한 도시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As a the tendency to that, on that focuses to the problem... to what degree can a mayor in this case of let's say New York City actually deal with that situation? It is not something that's of the mayor's fault, it's not something they'd be complicit in, it is something that is going on, which needs, actually, to be controlled, it needs, in effect, to be pushed backwards. One final point I would make, that's this...

그런 측면에서, 문제의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 뉴욕 시의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시장의 잘못이 아니고, 그들이 공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 통제되어야 하고, 사실상 뒤로 밀어내야 할 일이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최병두 Excuse me.....

죄송합니다만.....

데이비드 하비 One final point I would like to make, that's this...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최병두 It's your last? Last one? Ok.

이번이 마지막? 마지막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데이비드 하비 Ok. A mayor cannot govern as an individual. The mayor can only govern with popular support, and I think the mobilization of popular support, and the education of that popular support, around what it is that a city should be about and how it should work. That becomes as it were... the point where the mayor can become the great teacher, the great thinker, the great revealer of what the possibilities are in the alternative future.

네. 시장은 개인으로서 통치를 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오직 대중의 지지, 대중적 지지의 동원, 그리고 대중적 지지의 교육을 통해서만 통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 어떤 의미를 지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것들. 그것이 바로, 시장이 대안적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위대한 스승,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계시자가 되는 지점이지요.

최병두 예 고맙습니다. 제가 두 분의 말씀을 어떻게 요약해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1분만 쓰겠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비 교수님이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이론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논리에는 두 가지가 있고, ‘그 논리는 영토적 논리와 자본의 논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신제국주의』에 관한 책에서 두 가지 논리가 모순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확장되고 나가는 제국주의를 설명하는 논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도시에 직접 적용을 할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면에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이에 따라 도에서 실제 잉여가치를 실현해나가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경계해야 될 부분들, 특히 현대 자본주의의 insane aspects (무분별한 측면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서울시나 또는 오늘날 현대 거대도시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박 시장님의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예.

최병두 그런데 잠깐만요. 네, 두 분 말씀은 오늘 대답을 하기 위한 것입  
니다. 그래서 한 분당 한 3분 정도만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죄송  
합니다.

박원순 아니, 하비 교수님은 이미 20분을 쓰셨는데(청중 웃음).

최병두 예, 그러면은……



출처: 서울시 제공

박원순 교수님은 역시 교수님이시니까 강의를 하시고, 저는 또 시장이니  
까 시장으로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드  
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비 교수님, 저는 어제 밤에 이 책  
을 다는 못 읽었고요, 열심히 읽어보면서 굉장히 큰 영감 같은 걸 많이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에 간혀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이에 비해서, 하비 교수님 같이 어떤 큰 시대의 흐름을 놓고, 또 세계적 차원의 구조를 생각해 보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된다, 또 가슴에 새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territorial power(영토적 권력)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또 말씀하신 capital power(자본의 권력)를 우리가 물론 부분적으로는, 특히 그 capital(자본)을 규제하는 힘이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이 capital power라는 게 워낙 거대하니까…… 예컨대 다국적 기업들은 워낙 크고 또 글로벌한 차원에서 움직여지는 힘이니까, 사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가진 힘의 한계가, 공공기관으로서 예컨대 서울시가 가진 힘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지난번에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우리가 규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사한 대표적인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문제는 자본의 힘이 워낙 거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규제하는 힘이 중앙 정부에 대부분 속해 있기 때문에, 도시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힘의 한계를 갖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 임대료가 굉장히 오르고 있고, 그래서 도시 전체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해결하는 딱 하나의 방법은, 가장 파워풀(powerful)한 방법은, 임대료 상한선을, 임대료 효율 상한선을 정하는 겁니다. 뉴욕 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장이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도시의 경우는 그게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insane urbanization(무분별한 도시화)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화나 도시의 재개발이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뭐 저는 이런 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서울에 중요한 도시 구역을 아예 통째로 썰어버리고 완전히 전면 철거형의 도시 재개발을 해왔죠. 제가 추려서 보니까 서울 전역에 이

런 식으로 진행된 1,000여 개의 재개발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미 상당 정도 진행되었거나, 벌써 완성된 데도 있고, 상당한 정도로 포기된 데도 있고, 또 새로 시작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아마 그 결과물은, 어디 계시죠? 『아파트 공화국』을 쓰신 교수님, 네, 발레리(Valerie Gelezeau) 교수님. 아마 여기에 쓰여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도시의 어떤 인문적·역사적·자연적 요소를 살리면서 재개발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자본의 힘이라는 것은 너무나 막대해서, 말하자면 사실 이런 도시 재개발의 이익을 기본적으로는 그 거대 건설자본이 가지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그곳의 집주인들이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의 이익을 유지할 수는 있겠죠. 예컨대 같은 평수의 평형으로 된 아파트를 가지게 된다는지,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사실 상당한 숫자인데요, 거의 절반 내지 더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주인이 아닌 월세 사는 임차인들은 갈 곳이 없게 되고 이 사람들은 점점 도시의 외곽이나 또는 더 형편없는 그런 주거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요, 이런 과정에 대한민국의 법률 체제가 바로 이런 무지막지한 야만적인 개발을 합법화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이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을 결정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인데, 그 주민의 표, 숫자에는 소유권을 가진, 집을 가진 사람들만 계산되고, 이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임차인들은 제외됩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저는 이런 시스템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자본의 탐욕이라는 것이, 사실 과도한 공공 토목 내지 개발 사업을 지금까지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프라의 투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도시를 유지해야 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 울리히 벡(Ulrich Beck) 교수는 『위험 사회』라는 책을 쓰면서, 말하자면 이런 산업화가 위기의 사회를 만들

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장적 근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인데.

말하자면 서울의 경우는 한국전쟁 이후에 완전한 폐허에서부터 지난 한 50년, 60년간에 지속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해왔고 도시를 건설해왔기 때문에 성장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게 굉장히 노후화 되고, 위기에 처한, 도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도시 인프라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여전히 도로 건설하고,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안전이나 최소한의 유지 차원을 넘어서서 계속 투자하는 것은 사실 그런 자본의 논리가 배경에 존재한다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만큼 도시가 안게 되는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삶의 어떤 질, 그러니까 삶의 quantity(양)가 아니라 quality(질)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요 UNDP(유엔개발계획)의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삶의 질이 세계적으로 거의 36위대에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은 한편으로 삶의 질을 요구하고 좀 더 나은, 인간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다 보니 말하자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자살이라든지 범죄라든지 하는 이런 위험들, 그 외에도 수많은 어떤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일단 끝, 정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 번 재선 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저의 상대 후보가 저를 상대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서울은 잠지는, 잠자고 있다. 내가 잠지는 서울을 깨우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사실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어 내가 진짜 서울을 잠재웠나? 그동안 개발을 제대로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한번 돌려보니까 우리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거대한 개발이 아니고, 예

컨대 도서관, 보육, 작은 카페, 공원, 삶의 질, 이런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자신 있게 선거를 했는데 역시 제가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울 시민들이 오늘 이런 주제의 회의에도 이렇게 몰려들고 제가 그렇게 재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말하자면 이런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정말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인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여전히 이런 거대한 개발에 대한 압력이나 이런 탐욕의 힘이 사실은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만히 볼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변화는 분명 우리 사회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그래도 우리 하비 교수님한테 다시 마이크를 넘기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확실히 저성장의 기조로 안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3%대 성장률에서 곧 2% 성장 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 고도성장을 경험했던 세대가 이런 저성장을 겪게 되는데, 저성장의 시대는 굉장한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고통을 굉장히 많이 느끼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저성장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삶의 질은 높여가는 방법. 물론 서울시는 예컨대 사회적 경제를 증진한다든지, 또는 마을공동체를 추진해서 말하자면 개인, 분산 고립화된 개인이 아니고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해가자’라고 하는 이런 식의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세계를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저성장 시대에 도시들이, 또 시장이 어떤 일을 해서 이런 모순되는 일들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해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비드 하비 I think in every country there are... The level of municipal governance has very different possibilities. Given the nature, the way which powers are, the powers are divided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The social initiatives, I found extremely interesting in Uruguay for example. There has been a long tradition of social housing

which is to some degree self-built by the people, self-built and designed. And what happens is this forms a neighbourhood or a community which is outside of the market. It is space outside of the market where certain stability and continuity can be guaranteed.

모든 나라에는 그…… 각 국가의 지방자치 거버넌스의 가능성은 아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속성에 의해, 권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뉘어서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우루과이의 사회적 선도 활동을 매우 흥미롭게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 정도 시민에 의해 직접 건설이 되고 또 설계가 되는 사회적 주거의 오랜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장(market) 외의 마을 혹은 공동체를 형성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시장(market) 밖의 공간입니다.

So there, there are, there has been, long been a mechanism in which some sort of coalition is set up between a supportive local state apparatus and a social movement that accomplishes, builds something outside of the norms being defined by capitalist urbanization. And this is one of the ways in which affordable housing can be, not only produced, that is I think you probably know, you have to protect it. Because even if it's affordable housing when you start, if the market is there, it will soon turn it into non-affordable housing.

지방정부 지원 장치와 이를 완수하는 사회운동 간에 어떤 종류의 결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이 오래 동안, 늘 있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적 도시화에 의해 규정되어 온 규범들의 바깥에서 무언가를 건설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방식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이 생성될 뿐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무리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개입이 일어난다면, 부담 불가능한 주택이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So, there are initiatives of this kind in which the local state helped find the land and provided the expertise to a community to largely divide, produce, and create its own housing which was not market housing. This, I found a very, very fascinating experiment. Not only do they apply to construction for the new housing, but it's now just recently being applied to the rehabilitation of decayed areas in the center of Montevideo.

이런 방식으로 지방정부가 시장 주택이 아닌 그 자신의 주택을 주로 분리시켜서 생산하고 창출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땅과 전문 지식을 제공한 선도적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험은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데 응용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몬테비데오[우루과이의 수도]의 중심지에 있는 낙후된 지역들의 재생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Now, initiatives of this kind I think in part answer some of the questions which I think both you and I are posing about quality of life, but also about unalienated living in the city, that the degree or level people feel they produce their own space, they have a loyalty to it. And very concerned to maintain its continuity and go to great lengths to do so. This also tends to be, have political consequences because this form of housing has been around for some time and during the years of the military dictatorship these entities of communities were bastions of anti, the anti-democratic forms of governments. So I think there are, I just mentioned, this is one example, and I think those are the sorts of things that, if the city government moves into partnership with social movements then it supports the building of the social movement at the same time as it also supports the city and its administration that are in the aim of creating an alternative form of urbanization.

이러한 선도적 활동들은 저나 당신이나 삶의 질에 대하여 던지는 질문들에 어느 정도 답이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삶의 질이



아니더라도 도시에서 소외되지 않은 삶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을 생산하고, 이에 대해 충성심을 느끼는 정도와 수준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간의 지속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오래 동안 그렇게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정치적 결과를 낳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러한 형태의 주거가 오래 동안 경험을 쌓아 왔고, 또 군사독재 시절에는 이러한 공동체들의 구성원들은 반(反)민주주의적 형태의 정부에 대한 수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금 언급했듯이, 이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바로 이런 것이 도시정부와 사회운동이 협력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정부가 사회운동과 파트너십을 가지게 된다면, 정부는 사회운동의 구축을 지원하고, 또한 동시에 사회운동은 대안적 형태의 도시화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둔 그 도시와 그 행정부를 지원할 것입니다.

박원순 제가 하려는 이런 말이 잘 통역이 될지 모르겠네요 시장(mayer)이, 시장(market) 이외의 시장(market)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재래시장에 가니까 아니 왜 시장님이 여기 웬일이냐고 물어요. 아니 시장(mayer)이 시장(market)에 왔는데, 뭐가 잘못 되었냐, 제가 이런 농담을 드렸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서울연구원도 사실 이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고요, 사실 이미 제가 지난번 임기에 8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었고, 이번(임기)에도 또 공공임대주택을 8만 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또 모자라서, 리츠(REITs) 방식의 임대주택 약 2만 호. 또 최근에는 ‘청년 임대주택’ 약 4만 호 정도를 역세권에 도시계획적 수단을 통해서 더 제공하겠다고 이런 발표를 제가 했었는데요. 공공기관으로서 서울시가 사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 저는 시민사회가, 아니면 시민들 스스로가 이런 공동체

적 주택을 좀 더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방금 하비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하자면 기존의 시장적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그런 방식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건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지만 장수마을(성북구 삼선동 장수마을)이라고, 한양도성 주변에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 1950년 이후에 피난민들이 지은 주택들이지요, 산에 지어진 이 오래된 주택들이 낡아서, 동네 목수라고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작은 건설 또는 수선회사가, 사실은 사회활동가 출신인데요, 이 분들이 들어가서 그 허름한 주택들을 개선해 내는 작업들을 계속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도 산꼭대기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서울시가 도시가스를 넣어드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가드레일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을이 나름 재생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으로, 최근 서울시는 ‘협동조합 도시, 서울’이라는 선언을 했는데, 그중에 주택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인생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자기 인생에 닥치는 많은 문제를 분산 고립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럼 아이도 혼자 낳고 혼자 키우고 그 다음에 교육도 혼자 시키고,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혼자서 다 해결하려 했지요. 그런데 만약에 20대 내지 30대 초반에, 여기 젊은 여성들도 계신데, 결혼을 하면, 아이를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키울 주택을 하나 만들자고 조합을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30명 내지 50명이 모이면 서울시가 돈을 빌려드리고 그러면 일정한 토지를 사서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나 넣어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학습 공부방을 일일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크게 하나 내지는 두 개를 만들고, 그리고 밥을 왜 저녁마다 따로 해먹습니까? 왜 그거 뭐라고 그러죠? 팻럭(Potluck;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와서 나눠먹는 행사)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건축의 비용을 훨씬 줄일 수가 있죠.

이런 방식으로 요즘 주택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걸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의’ 줄임말]라고 하는 데, 벌써 아홉 개 짝 만들어지고 있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한다든지, 또 서울 시유지를 임대를 해주고 거기서 집을 짓게 해준다든지. 이런 방금 말씀하신 시장 밖의 시장을 확대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게, 그리고 이런 주택 회사들이 한 20여 개가 되는데요, 이런 회사들을 더욱 강화시키고 확대시켜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너무나 고도 성장시대를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누구나 투기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주택이라는 것이 살기 위한 것, to live in이 아니고, to earn,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해 왔죠. 그래서 서울에서 한 집에 사는 기간이 평균 3.5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늘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정주성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투기하고, 또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이 거대한 흐름이 사라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고팔고 하는 이런 현상은 줄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취득세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시의 재정은 아주 바닥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지원을 부동산의 취득세로 줄 게 아니고, 사실은 부가가치세, 소비세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아마 하비 교수님이 아시면 좋을 정보인데요, 지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세수의 비율이 2대 8입니다. 일은 실제 서울이나 지방이 많이 하면서, 재원은 중앙정부가 8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의 권한 문제는 물론이고, 지금 우리 시대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치와 분권이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시대에 시민들의 가까이에서 이런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재정과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고, 하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의 변화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늘 시행착오가 거듭되는 상황이 오는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의 특징만은 아닐 텐데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저성장 사회라든지 어떤 공공성 대신에 자본의 탐욕이 지배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많은 도시들의 현상일 텐데,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어제 『자본의 17가지 모순』에 관한 이 책을 보니까 이 얘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서문에, 우리에게는 자본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고민할 수 있는 열린 장이 필요하다. 이를 테면 세계의회, 글로벌 어셈블리.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또 제가 좀 알고 있는 벤자민 바버(Benjamin Barber)라고 하는 교수님은 Mayor's Congress(시장 회의) 같은 게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던 적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에 관한 아이디어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최병두 Excuse me, we have ten minutes. I'm sorry.

실례하지만, 지금 저희가 10분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데이비드 하비 I'm rather skeptical about the Mayor's Congress because one of the mayors that featured very heavily in professor Barber's book was Michael Bloomberg of New York who was my big enemy. So, there are good mayors and there are bad mayors and I think for everything I hear you are in the good category, so…… And I say that not just simply to flatter you, but from what I hear.

Mayor's Congress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아무래도 바버 교수의 책에 많이 등장하는 시장들 중 하나가 뉴욕 시의 마이클 블



출처: 서울시 제공

룸버그 시장인데, 그는 저의 큰 적이었죠. (청중 웃음) 그러니까, 좋은 시장도 있고 나쁜 시장도 있는데, 들리는 바로 당신은 좋은 시장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 이것은 그저 당신을 칭찬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제가 들은 바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But there are many issues I think to discuss. One struck by... Seoul has tremendously good reputation and from first hand experience I would support this, that you have one of the better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in the world. But we still have a problem with the automobile.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the automobile?

그래도 논의하고 싶은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하나는…… 서울은 평판이 아주 좋은 도시이고,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중교통 체제들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박원순 교수님이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사실 서울은 대중교통이 외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상당히 나은 편이긴 하죠. 그런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의 소외지역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기존에 있는 9개의 노선에다가 소외지역을 연결해주는 그런 경전철 프로젝트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자동차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특히 4대문 안에는 그냥 자동차가 일체 못들어오게 어느 날 새벽에 그냥 가로막아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게 교수님만큼 혁명적인 생각은 못하고, 그 대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패키지 정책을 갖고는 있습니다.

우선 대중교통 전용지구나 ‘차 없는 거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또 기존의 도로 중에도 ‘도로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차선을 하나씩 줄여서 보행자들과 자전거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작년 부터 저희들은 ‘public bike system’(공공자전거시스템)을 도입해서 ‘따릉이’라고 하는 자전거를 시내에 5,000대를 풀었는데, 금년 안에 저희들은 2만 대로 늘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역 고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본래 자동차 전용도로였는데 그걸 금지하고 지금은 사람만 다니는 도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남북축으로 된 세운상가에 2층 데크를 깔아서 보행로를 만들고 또 종로에 중앙차로제를 강화하면서 차선을 하나씩 없애버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는 들어와서 그냥 너무나 힘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법주차는 과감하게 tow away, 견인하고요……

네, 뭐 이걸 단계적으로 하면 아마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겠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조금씩 바꾸어나간다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 광화문도 주말마다 막는 것 아시죠? 그래서 이걸 계속 시행하다 보면, 사람이 안 다니는 차길보다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이걸 지금 계속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런 걸 통해

서 서울을 확실하게 보행 친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두 Yes, I'm very sorry but there is five minutes left, so would you please finish within just three minutes? for your final comment?

네,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금 5분밖에 안 남아있는데 혹시 3분 정도만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마지막 한 마디 정도?

데이비드 하비 It'd be difficult to come to a conclusion. But one of the things I would want to emphasize, you know, it's important to talk about what the city can do but it's also up to you to decide how to mobilize and how to pursue the question of better urban life. If you are passive then capital wins, hands down. If you are active, then it, you know, it is possible. And I'm not an anarchist, and I don't believe that state is irrelevant. I believe that the state can be a very strong partner to the social movements. And the question of what your city is, is going to depend, much on you, as it does apart you. And I think that to that partnership is what is really required.

결론을 말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 중의 하나는, 아시다시피, 당신의 도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더 좋은 도시적 삶의 문제를 어떻게 동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추구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동적이라면 자본이 이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적극적이라면, 아시다시피,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라서, 국가가 무의미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회운동에 있어 국가는 아주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시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의 문제는 당신과 분리될 수도 있지만, 또한 당신에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And I think the left in general has to, I think pay very close attention to the politics of daily life as being one of the crucial questions of their time. The left has often prioritized problems in the workplace. I think those are very important and I'm not going to say that they aren't important. But what I'm going to say is, that the problems of the living space are just as important. And that alliances have to be built to try to control an out-of-control capital, because it's, capital, it's going insane in these times, and driving us along with it, and I'm an anti-capitalist for that reason. And I think that any sane person should be anti-capitalist. So I would encourage you to that, but obviously that just doesn't mean, you know, making a revolution tomorrow, it means gradual transformations. The education of desire for example which takes a long time, and I think those kinds of long growing out processes are what revolutions, transformations are about. But it's not going to come from above. No matter how benevolent a leader you may have it's going to be, it's going to have to come from you.

전체적으로 좌파는, 제 생각에는, 동시대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일상생활의 정치에 대해 긴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좌파는 종종 노동 현장의 문제들을 우선시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공간에 대한 문제들도 역시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를 벗어난 자본을 다시 통제하기 위해서는, 동맹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자본은 오늘날 무분별하게 행동하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이유에서 반(反)자본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자본주의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그러기를 제가 권유를 하겠지만 그게, 아시다시피, 당장 내일 혁명



을 일으켜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는 점진적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욕망에 대한 교육도 그러한 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친 과정이 진정한 혁명이자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위에서부터 내려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지도자를 뒀다고 해도, 그 전환은 바로 당신에게서 와야 할 것입니다.

최병두 예 시장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원순 하비 교수님 카테고리에 따르면 저는 아마 100% sane하지는(100% 분별력을 갖추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sane하려고 노력하는 시장이고자 합니다. 지난 번 구의역 사고를 경험하면서, 저는 제가 참, 노동 존중 도시 서울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또 거대 자본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사람 중심의 도시 서울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정말 완전하지 못했구나, 여러 가지 허점이 아직도 있구나, 우리 사회에 그동안 거대한 파도처럼 몰아쳤던 신자유주의의 명령을, 사람보다는, 사람의 생명보다는, 자본의 어떤 효율성이나 합리화라는 그런 명령을 다 떨쳐내지 못했구나 하는 좀, 굉장히 큰 성찰과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라도, 서울시에서만이라도 이러한 어떤 흐름을 막아내고 그리고 보다 더 인간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결의를 했고.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그걸 발표해나갈 생각입니다, 실천해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하나의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거대하고도 또 급속한 산업화, 성장의 시대에서 이제는 그런 성장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해지는, 사람이 더 중시되는 그런 시대로 가야지, 그래야 진정한 경제 성장의 목적도 우리가 달성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속가능한 성장, 또는 앞서 발표했던 포용적 성장,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잡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비 교수님이나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로부터 많은 말씀을 듣고 가고요. 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정신과, 시민의 수준과, 또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압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 좋은 정책, 이런 방향의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저도 유권자와 표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시민의 힘이 최종적으로 우리 사회를 결정짓는 요소다, 그런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병두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희망의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분의 대화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사실 처음에는 상당히 당혹스러웠고, ‘두 분의 대화가 잘 안 되면 어쩔까?’라고 우려를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두 분의 대답은 진정하게 서로를 위하면서도 서로 경합하는, 상호인정을 위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호인정을 위한 투쟁에서 두 분은 정말 적극적이고, 뭐라고 할까요? 정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분의 상호 공감은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두 분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녹취와 번역: 서울대 지리학과 박채연)